
1.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해주고,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나?

- **성년후견제도:** 어르신이 병 때문에, 혹은 갑자기 다치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어질 때, 법원에서 어르신을 도와줄 사람, 즉 *****후견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후견인이 어르신 재산 관리도 해드리고, 병원에서 치료 결정 같은 중요한 일도 어르신 대신해서 도와주는 거죠.
 - **내가 미리 정하는 '임의후견':** 어르신이 지금처럼 건강하실 때, 나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믿을 만한 자식이나 조카, 아니면 아주 친한 이웃에게 부탁해서 계약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어르신 마음대로 도와줄 사람을 정할 수 있어서 좋아요.
 - **법원에서 정해주는 '법정후견':** 만약 미리 정해두지 못했는데 몸이 불편해지셨다면, 어르신을 아끼는 가족이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곳에서 법원에 '후견인을 정해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어르신 상황에 맞춰서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나,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주는 거랍니다.
 - **나라에서 도와주는 '공공후견':** 만약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도무지 없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나서서 '공공후견인'이라는 분을 정해줘요. 이분들이 어르신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나를 돌봐주는 건요?**
 - **요양 서비스:** 몸이 많이 약해지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이나, 낮 동안만 보호해주는 **'주야간보호센터'**, 아니면 아예 전문 시설인 **'요양원'** 같은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드는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을 확인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자세히 알려드려요.

2. '공공후견인' 같은 건 혼자 사는 내가 어떻게 신청하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어르신 혼자 계실 때 공공후견인 제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 **공공후견인이 뭐냐면요:** 어르신이 몸이 아파서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못하게 됐을 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분이 어르신 대신해서 재산 관리도 해주고, 중요한 일도 결정해주는 제도예요. 자식이나 다른 가족이 없을 때, 나라가 대신 보살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어떻게 신청하냐면요:**
 1. **누군가 알아채요:** 어르신이 혹시라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 이웃이나 복지사님, 병원 관계자 같은 분들이 '아, 이 어르신 좀 도와드려야겠다' 하고 알아채실 거예요.
 2. **법원에 알려요:** 그럼 그분들이 법원에 '이 어르신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해드려요. 이때 '어르신 돌봐줄 가족이 없어요' 하고 법원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3. **나라에서 나서요:** 법원에서 심사를 해보고, 정말 혼자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면, 나라에서

공공후견인을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4. **후견인 활동 시작:**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을 정해주면, 그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르신 재산도 관리해드리고, 어르신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미리 준비하는 것!):** 어르신, 지금처럼 건강하실 때 미리 '임의후견' 계약을 해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받고, 어르신이 믿는 분을 후견인으로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걱정하실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로 법률 상담도 해주시고, 성년후견 관련해서도 도와주실 거예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 지원센터:** ☎ 02-3482-1400 (여기는 성년후견만 전문으로 상담해드려요.)
 -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사시는 동네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이나,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사회복지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세요.
-

3. 요즘 치매 관련해서 새로 바뀐 법이나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혜택 같은 건 없나요?

네,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 관련해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많이 생기고 바뀌었어요.

- **치매 관련 혜택:**
 -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 보건소 가보셨죠? 그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치매가 있는지 미리 검사도 해주고, 치매에 걸리셨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도 해줘요. 치매 환자분들 쉬는 곳(침터)도 운영하고요. 치매가 걱정되시면 여기를 가장 먼저 찾아가 보세요.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장기요양보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돈을 보태주는 제도예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료비 지원:** 소득이 적으신 어르신들은 치매 진료비나 약값을 나라에서 일부 도와드리기도 해요.
 - 문의: 치매안심센터나 동네 주민센터
 - **혼자 사는 어르신 혜택:**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댁에 불이 났을 때 감지하는 기계나, 어르신 움직임이 없으면 비상 상황으로 감지해서 119에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이걸 설치해두면 훨씬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겠죠?
 - 신청: 동네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계신 어르신들 안전 확인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 신청: 동네 주민센터
-

4. 내가 치매에 걸려도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 **장기요양보험:** 치매는 이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병이에요.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보험:** 일반적인 병원비나 약값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보장이 돼요.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병세가 심해지면 본인 부담금을 더 줄여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동네 주민센터
- **주택연금:** 어르신 소유의 집이 있으시면,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집은 계속 어르신 것이고, 생활비는 계속 나오니 훨씬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개인 보험:** 혹시 어르신이 예전에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같은 걸 들어두셨다면, 그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 만약에 내가 쓰러지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할지 순서대로 알려주고, 어디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만약 갑자기 쓰러지셨다면 (응급상황)

1. **119에 전화:**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쓰러지셨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들 때, 침착하게 119에 전화해서 '제가 지금 어디에 쓰러져 있어요' 하고 알려주세요.
 - 연락처: 119 (소방서, 구급대)
2. **이웃이나 아는 분께 연락:** 평소에 위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이웃이나 친한 분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평소에 미리 비상 연락처를 알려두시면 좋아요.)
3. **병원 진료:** 119 구급대원들이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갈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평소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떤 약을 드셨는지 꼭 말씀드려야 해요.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서 걱정될 때

1.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 받기:**
 - 기억력이 자꾸 깜빡거리거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아보세요.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 연락처: 다니시던 병원이나 가까운 종합병원
2.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상담하기:**
 -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사시는 곳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꼭! 가서 등록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이곳에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치매 초기 상담, 무료 검진, 치매 환자분들 쉬는 곳(쉼터), 치료비 지원 안내 등
- 연락처: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또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각 지역 보건소)
- 3.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기:
 - 치매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세요. 이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같은 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직접 가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4.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하기:
 - 치매 진단 후 혼자 지내기 힘들다면, 동네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기초생활수급 같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 연락처: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 대표번호 (혹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어르신 복지'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세요.)
- 5. 성년후견인 정하는 문제 논의하기:
 - 스스로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변호사님이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연락해서 성년후견인을 정하는 문제를 미리 상담해보세요. 미리 '임의후견' 계약을 해두셨다면, 그 계약 내용대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 지원센터 ☎ 02-3482-1400

어르신, 가장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 비상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거나 휴대폰에 저장해두세요.
- 중요한 서류들(통장, 보험 증서, 진단서 등)은 한곳에 모아두고,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것도 있어요. 어르신이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서류예요. 건강하실 때 미리 작성해두시면 어르신의 뜻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1855-0075
-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도 꼭 추천드려요.

어르신,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세요!